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송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서회원	면담자	조연희		
면담장소	아셀트리목공방	면담지원	학산문화원 최지은		
면담 일시	2022년 10월 5일	회차	2	시간	49분 16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1655				
구술 개요	독학으로 목공을 배움, 목공일을 시작할 때부터 교육에 뜻이 있었음. 기계를 만지는데 두려움이 없고 제제목목을 만질 때 가장 재밌음. 우연한 계기로 개인 레슨을 하게 되어 목공 교육을 시작함. 아이들이 커서 목공일을 하고 싶다면 대물려줄 의향이 있음. 나중에 전통 짜맞춤을 배워 의자를 만들고 싶음.				
주요 색인어	인터넷, 독학, 국내산, 기계, 실생활, 안전, 제제목, 카페, 취미, 목공품, 본드, 톱, 도장, 부레, 개인 레슨, 전통 짜맞춤, 이름, 아셀, 직업병, 예민함, 기관지, 후각, 오일, 의자, 교회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목공 시작			00:00:59~ 00:08:06	▷ 활동기획안 ▷ 구술활동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목공을 독학으로 배워, 전통 짜맞춤 방식이 아닌 실생활에서 일반 가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 - 목공을 시작할 때부터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 - 인터넷을 많이 활용 - 침대나 농 같은 가구 위주 - 중고 국내산 기계 많이 사용 - 고가의 메이커 기계보다 국내에서 제작된 장비만으로 충분 - 2016년, 목공예마을 근방, 주택가 쪽 작은 창고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공방 시작. 1년 전, 이 기억 때문에 지금의 큰 공방으로 이전.					
2. 기계			00:08:07~ 00:10:51		
- 기본으로 모든 기계는 수직 수평이 맞아야 함. - 기계 만지는 데 두려움이 없음. - 기계를 만지다가 위험하다는 직감이 들면 일단 한 번 쉼. - 안전이 가장 중요.					
3. 나무			00:10:52~ 00:17:25		
- 제제목목을 만질 때 제일 재밌음. - 가구를 만들 때에는 집성목을 가장 많이 씀. - 나무 수급 시 김포, 강화 쪽의 거래처 이용. 급할 때는 인터넷 이용					

- 인터넷 카페에서 자재 수급, 장비 사용 등의 정보 얻을 수 있음. - 요즘은 목공을 배우기 위해서 도제식이 아니라 유튜브나 블로그, SNS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음.		
4. 목공품 등		
-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205본드 사용. 가성비가 좋고, 친환경적임. - 가구 만들 때는 더 튼튼한 타이틀 본드 사용 - 도마를 만들 때는 FDA의 승인을 받은 본드 사용. 수분하고 원목은 상극이라 이걸 보강한 본드 사용. - 도장작업, 유성과 수성이 있는데, 코팅력은 유성이 더 좋음. - 제비표 제품이 마음에 듭.	00:17:26~ 00:29:23	
5. 목공교육		
- 처음에 했던 수업은 개인 레슨. 우연한 계기로 조그마한 선반을 만들고 싶어 방문.	00:29:24~ 00:32:03	
6. 목공업 희망사항		
- 전통 짜맞춤을 배우고 싶음. 힘든 과정을 다 손으로만 하는 분들을 존경하여 자신도 전통 공구가 아닌 수공구를 이용해 직접 만들고 싶음.	00:32:04~ 00:34:32	
7. 대물림		
- 아이들이 커서 목공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대물려줄 의향이 있음. - 아셀의 의미는 ‘기쁨을 주는 복을 주는’ 임.	00:34:33~ 00:40:27	
8. 직업병		
- 작업할 때는 예민할 정도로 꼼꼼함. - 그냥 돌아다닐 때도 다른 분이 만든 걸 평가하게 됨. - 기관지 건강에 유의 - 냄새 때문에 도장 작업 가장 싫어함. - 나중에 짜맞춤으로 의자를 만들어보고 싶음.	00:40:28~ 00:49:16	